



## 윤성원 전문위원의 세계의 주얼리 하우스 ② 주얼러를 위한 주얼러, OSCAR HEYMAN



윤성원 본지 전문위원  
잇주얼리 대표  
주얼리마케팅 컨설턴트

까다로운 뉴욕거의 취향과 스타일을 만족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주얼리 수도' 뉴욕. 이곳의 화려하고 거대한 주얼리 하우스들 뒤에는 탄탄한 기술력으로 부정한 형제들이 있었으니 바로 지난 2012년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오스카 헤이먼(Oscar Heyman)>이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까르띠에, 해리 윈스턴, 반클리프 앤 아펠, 티파니 등 최상급 주얼리 하우스들의 제품을 제작해온 회사로 미국 장인들의 재치 있는 디자인과 유럽의 기술을 사용한 세심한 수공으로 '주얼러를 위한 주얼리'로서 이름을 빛내왔다.

1901년 헤이먼가(家)의 9남매 중 오스카(Oscar)와 네이슨(Nathan)이 고향인 라트비아(Latvia)를 떠났을 때가 각각 13살과 16살이었다. 형제는 러시아의 하리코프(Kharkov)로 가서 파베르제(Faberge) 공방의 수장이었던 삼촌 밑에서 5년간 견습생으로 일을 배운다. 1906년 뉴욕으로 건너온 후 오스카는 작은 공방의 기술자로, 네이슨은 도구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였고, 1907년에는 동생인 해리까지 합세하였다. 당시 뉴욕에는 플래티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 급속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는 귀한 상황이었다. 무일푼에 영어도 한 마디 하지 못했던 이 형제는 플래티넘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1차 세계대전 전까지 플래티넘의 유일한 공급원이었던 러시아 공방에서 익힌 기술 덕분이었다. 헤이먼 형제가 만들어낸 플래티넘 제품들은 고도의 예술적 기교를 반영한 것이어서 이들의 초기 제품을 소유하거나 발견하는 사람들은 행운가로 불릴 정도이다.

경제 호황을 누리던 뉴욕에 까르띠에가 지사를 설립한 1909년 헤이먼 형제는 까르띠에의 제조를 맡는 유일한 비(非) 프랑스 주얼러가 되어 탄탄대로를 걸기 시작한다. 오스카는 당시 유행하던 러시아 스타일이자 20세기 초 까르띠에와 파베르제를 긴밀히 연결해준 갈란드(Garland) 스타일에서 섬세하고도 전문적인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오스카 헤이먼가의 오스카(좌)와 네이슨(우) 형제

형제들의 승승장구와 함께 1911년 헤이맨의 모든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이듬해인 1912년에는 동생인 루이스와 윌리엄까지 합세하여 'Oscar Heyman & Bros., Inc.'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다른 동생들 중 조지는 다이아몬드 선별과 세팅 전문가로, 여동생인 레나와 프란시스도 회사의 행정을 담당하여 철저한 가족 사업의 기틀을 마련한다.

1916년에서 1942년까지 오스카 헤이맨 형제 회사는 주얼리 디자인과 공장에서 '인비저블 클래스프'와 브로치의 추가 핀(Extra Pin) 등 7개의 특허를 획득하였다. 여기에는 도구 제작자였던 네이슨이 발명해낸 여러 기계설비의 덕이 컸으며 이는 지난 100년 동안 주얼리 디자인과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다.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오스카 헤이맨은 다수의 상징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920년대의 아르데코 작품인 '안투라지 반지(Entourage Rings)', 1930년대를 대표하는 마커스 앤 코(Marcus & Co.)의 가디니아 & 팬지(Gardenia & Pansy) 브로치와 반클리프 앤 아펠의 '인비저블 세팅' 등이 있다. 당시 미국에서 제조된 반클리프 앤 아펠의 인비저블 세팅 대부분은 헤이맨 형제가 만든 것이며 오늘날에도 다른 파인 주얼리 하우스들을 위해 완벽한 인비저블 세팅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1950년대에 디자인된 클래식 발레리나 반지와 테일러-버튼'으로 유명한 1960년대의 까르피에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69.42캐럿)도 헤이맨의 작품이다. 오스카 헤이맨의 디자인 혁신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100캐럿에 육박하는 캐츠아이 크리스베릴(Cat's eye Chrysoberyl)과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플래티넘 목걸이, 멀티컬러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 팔찌 등 파베르제의 공방에서 습득한 기술과 보석에 대한 열정은 시간이 흘러서도 귀보석과 플래티넘의 조화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그들의 후손은 깊은 역사와 현대적인 시각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느덧 헤이맨의 이름은 아름다움, 스타일, 그리고 최고 품질의 보석과 동의어가 되었다.



테일러-버튼'으로 유명한 1960년대의 까르피에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69.42캐럿)도 헤이맨의 작품이다.







오늘날 오스카 헤이만의 최대 강점은 자체적으로 제조의 모든 단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데에 있다. 기계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계 설비부터 디자이너, 랜딩 전문가, 스톤 바이어, 스톤 연마사, 스톤 세터, 조각사, 광기사, 세공사, 그리고 연구원과 마케터로 구성된 인력은 금속 합금부터 스톤 연마 및 가공까지 뉴욕 매디슨 에비뉴의 한 건물 안에서 가능케 한다. 모든 제품에는 서명과 넘버링이 이루어지며 이는 지난 100년 동안 가지고 온 장인정신에 대한 자부심과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들은 1920년대부터 기록보관소를 두어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대조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OHR라는 서명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는다.

오스카 헤이만은 여전히 유수의 소매상 파트너들의 시그니처 컬렉션과 개별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로도 꾸준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게다가 개인 고객의 제품을 디자인할 때는 스케치부터 왁스모델 작업까지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뿐 아니라 고유의 부속품과 도구까지 만들어 기계적 문제까지 해결해준다. 즉 메인 보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 스스로 갈아 끼워 착용할 수 있게끔 특별 도구와 부속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기록은 보관되며 부속마다 시리얼 넘버를 새겨 넣어 사후 관리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110년 전 파베르제 공방의 엄격한 훈련을 통해 취득한 오스카 헤이만의 주얼리에 대한 기본 정신은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가보급의 주얼리를 만들어온 후손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어느덧 3대째 가업을 이어온 이들은 "사람들이 이 가보를 팔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주얼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힘주어 말한다. 헤이만 형제의 또 다른 찬란한 100년을 기대해 본다.

